

生醫—倫理學 (Bio-Medical Ethics)이란 무엇인가

1. 생의 윤리

그러나 생의 윤리란 무엇인가? 생명 윤리란 생명체의 존엄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인간 배아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배아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배아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배아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생의 윤리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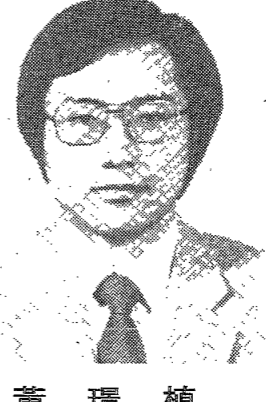
생의 윤리는 생명체의 존엄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인간 배아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배아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배아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배아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생의 윤리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2. 생의 윤리

생의 윤리는 생명체의 존엄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인간 배아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배아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배아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배아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생의 윤리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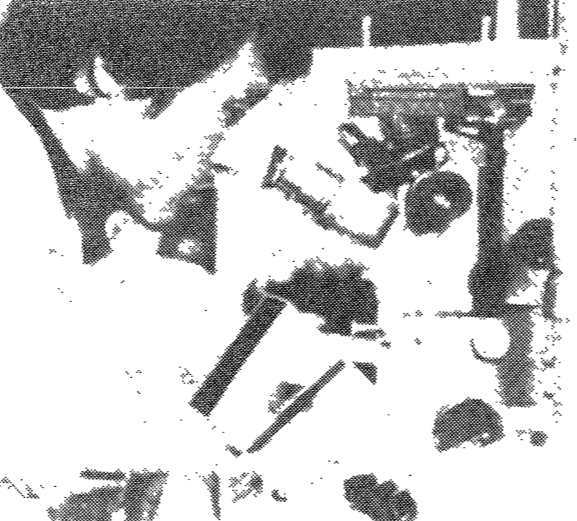
생의 윤리와 의료문제 다루는 응용윤리학 의미

생명과학이 윤리를 더 깊게 다룬다



黃 環 植 <서울대 교수·倫理學>

생명과학의 발달은 의학의 진보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 배아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배아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생의 윤리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생명과학 연구실의 모습

생의 윤리는 생명체의 존엄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인간 배아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배아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생의 윤리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생명과학이 윤리를 더 깊게 다룬다

생의 윤리는 생명체의 존엄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인간 배아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배아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생의 윤리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생의 윤리는 생명체의 존엄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인간 배아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배아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생의 윤리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인간관계의 중요성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한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현대인에게 필수적이다.

생의 윤리는 생명체의 존엄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인간 배아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배아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생의 윤리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롯데인삼맛찜에는 인삼엑기스가 들어있습니다

인삼의 맛을 찜으로 즐긴다!
인삼 엑기스를 넣어 만든 인삼맛찜은 대한민국 전배향 인기식품입니다. 입안이 텁텁할 땐 인삼맛찜을 씹으세요. 인삼 엑기스의 씩씩한 맛이 입안이 개운해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基本法改廢論議』 藤野野矢

『정치권력의 유착이 병폐』



藤野野矢 著

정치권력의 유착이 병폐... 정치권력의 유착이 병폐... 정치권력의 유착이 병폐...

국가안보를 언론통제와 동일시하는 그릇된 言論觀이 문제... 국가안보를 언론통제와 동일시하는 그릇된 言論觀이 문제...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

보수적인 권력유착의 사면포용에

보수적인 권력유착의 사면포용에... 보수적인 권력유착의 사면포용에...

현행 선거제도는 혁신세력의 등장에

현행 선거제도는 혁신세력의 등장에... 현행 선거제도는 혁신세력의 등장에...

대통령과

대통령과... 대통령과... 대통령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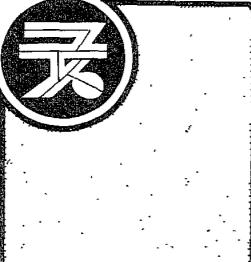
국립표본

국립표본... 국립표본... 국립표본...

국립표본

국립표본... 국립표본... 국립표본...

Advertisement for Golden Textile (골덴텍스)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the slogan '오늘은 좋은날' (Today is a good day).



전통적美意識이 가져온 국의 수용자세

환전반에 걸쳐 반영되었고 인간병기의 기준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미의식은 조선시대 지배계급인 양반들의 미학적 견해인 것이고 직접 노동을 하면서도 그 생산물들을 배양할 수밖에 없었던 기층민중들의 미학적 견해는 피지배계급으로서 다르게 표출됐으리라 보여진다. 그중에서 한국 기층민중이 소유하고누려왔던 「국」이라는 내용과 형식은 오랜 세월을 유지해왔고 현재도 그 생활력을 잃고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국」은 언제, 어떻게, 왜 벌어졌으며 어떤 세계관 속에서 민중의 정서와 미의식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생존을 위해

동학혁명은 두레국을 기반으로 조직된 의병국으로서 봉건지배 계급과 외세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민중들의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문제극복의 큰 국이었다.

2. 국은 언제, 어떻게, 벌어졌나

국(國)이란 돌이켜서 대개의 사람들이 알고있는 국은 무당이 하는 개인국 뿐인데 국은 없는 것이다. 원시사회에서는 생산의 양과 질이 삶의 최고 가치기준이었고 자연-해, 달, 산, 바다는 생산물을 획득하는 노동대상이면서도 그러한 이유로 풍농, 풍요를 염원하는 신앙대상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것은 생산력이 일정단계로 발전하기 전까지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미학적 견해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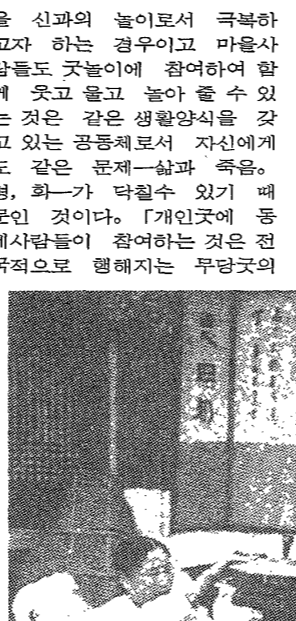
계급발전 이후에도 좀 더 효과적인 지배를 위해 지배계급에 봉사했던 서양 중세의 기독교사상은 질서와 복종을 최고가치로 하는 미적세계를 그림, 벽화, 건축물들과 생활규율, 생활양식들을 통해 나타냈던 것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유교적 도덕관념들은 조선시대 최고의 가치체계로서 일반과 상민계급의 명확한 구별과 그러한 계급관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였고 특히 여자들에게 있어 삼종지도, 칠거지악 등이 최고의 필요 아름다움으로 그러한 미의식은 의식주 생

활전반에 걸쳐 반영되었고 인간병기의 기준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미의식은 조선시대 지배계급인 양반들의 미학적 견해인 것이고 직접 노동을 하면서도 그 생산물들을 배양할 수밖에 없었던 기층민중들의 미학적 견해는 피지배계급으로서 다르게 표출됐으리라 보여진다. 그중에서 한국 기층민중이 소유하고누려왔던 「국」이라는 내용과 형식은 오랜 세월을 유지해왔고 현재도 그 생활력을 잃고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국」은 언제, 어떻게, 왜 벌어졌으며 어떤 세계관 속에서 민중의 정서와 미의식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생존을 위해

2. 국은 언제, 어떻게, 벌어졌나

국(國)이란 돌이켜서 대개의 사람들이 알고있는 국은 무당이 하는 개인국 뿐인데 국은 없는 것이다. 원시사회에서는 생산의 양과 질이 삶의 최고 가치기준이었고 자연-해, 달, 산, 바다는 생산물을 획득하는 노동대상이면서도 그러한 이유로 풍농, 풍요를 염원하는 신앙대상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것은 생산력이 일정단계로 발전하기 전까지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미학적 견해였던 것이다.

계급발전 이후에도 좀 더 효과적인 지배를 위해 지배계급에 봉사했던 서양 중세의 기독교사상은 질서와 복종을 최고가치로 하는 미적세계를 그림, 벽화, 건축물들과 생활규율, 생활양식들을 통해 나타냈던 것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유교적 도덕관념들은 조선시대 최고의 가치체계로서 일반과 상민계급의 명확한 구별과 그러한 계급관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였고 특히 여자들에게 있어 삼종지도, 칠거지악 등이 최고의 필요 아름다움으로 그러한 미의식은 의식주 생



<진도지방의 「씻김국」 중에서>

국(國)이란 돌이켜서 대개의 사람들이 알고있는 국은 무당이 하는 개인국 뿐인데 국은 없는 것이다. 원시사회에서는 생산의 양과 질이 삶의 최고 가치기준이었고 자연-해, 달, 산, 바다는 생산물을 획득하는 노동대상이면서도 그러한 이유로 풍농, 풍요를 염원하는 신앙대상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것은 생산력이 일정단계로 발전하기 전까지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미학적 견해였던 것이다.

계급발전 이후에도 좀 더 효과적인 지배를 위해 지배계급에 봉사했던 서양 중세의 기독교사상은 질서와 복종을 최고가치로 하는 미적세계를 그림, 벽화, 건축물들과 생활규율, 생활양식들을 통해 나타냈던 것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유교적 도덕관념들은 조선시대 최고의 가치체계로서 일반과 상민계급의 명확한 구별과 그러한 계급관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였고 특히 여자들에게 있어 삼종지도, 칠거지악 등이 최고의 필요 아름다움으로 그러한 미의식은 의식주 생

계급발전 이후에도 좀 더 효과적인 지배를 위해 지배계급에 봉사했던 서양 중세의 기독교사상은 질서와 복종을 최고가치로 하는 미적세계를 그림, 벽화, 건축물들과 생활규율, 생활양식들을 통해 나타냈던 것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유교적 도덕관념들은 조선시대 최고의 가치체계로서 일반과 상민계급의 명확한 구별과 그러한 계급관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였고 특히 여자들에게 있어 삼종지도, 칠거지악 등이 최고의 필요 아름다움으로 그러한 미의식은 의식주 생

국(國)이란 돌이켜서 대개의 사람들이 알고있는 국은 무당이 하는 개인국 뿐인데 국은 없는 것이다. 원시사회에서는 생산의 양과 질이 삶의 최고 가치기준이었고 자연-해, 달, 산, 바다는 생산물을 획득하는 노동대상이면서도 그러한 이유로 풍농, 풍요를 염원하는 신앙대상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것은 생산력이 일정단계로 발전하기 전까지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미학적 견해였던 것이다.

2. 국은 언제, 어떻게, 벌어졌나

국(國)이란 돌이켜서 대개의 사람들이 알고있는 국은 무당이 하는 개인국 뿐인데 국은 없는 것이다. 원시사회에서는 생산의 양과 질이 삶의 최고 가치기준이었고 자연-해, 달, 산, 바다는 생산물을 획득하는 노동대상이면서도 그러한 이유로 풍농, 풍요를 염원하는 신앙대상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것은 생산력이 일정단계로 발전하기 전까지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미학적 견해였던 것이다.

계급발전 이후에도 좀 더 효과적인 지배를 위해 지배계급에 봉사했던 서양 중세의 기독교사상은 질서와 복종을 최고가치로 하는 미적세계를 그림, 벽화, 건축물들과 생활규율, 생활양식들을 통해 나타냈던 것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유교적 도덕관념들은 조선시대 최고의 가치체계로서 일반과 상민계급의 명확한 구별과 그러한 계급관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였고 특히 여자들에게 있어 삼종지도, 칠거지악 등이 최고의 필요 아름다움으로 그러한 미의식은 의식주 생

- 글 쓰는 차례
- 1. 국의 歷史의 변천
- 2. 국의 미학과 민중의 정서 및 미의식
- 3. 민중중고 사상으로서 본 국
- 4. 민중국의 과제와 전망

3. 맺음말
간단하나마 이상에서 살펴 보았을때 국은 무당이 하는 개인적인 求福과 별을 다스리는 주악거리 정도의 미신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존원리로서 자연과의 갈등, 인간과의 갈등— 좁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리고 사는 생산의 문제와 그것을 둘러싼 계급적 이해관계 배제와 피지배계급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에

국(國)의 미학은 억압 풀고 해방을 맞이하는 것 두레국(都雷國) 노동참여의 문제를 해결 마을(마을)은 공동체의 문제구복 위한 집단(집단)의 지

한 구체적 실천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 속에 담긴 민중의 미의식은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는 공동체성이며, 중요요를 바라는 생산주체로서의 건강성이, 생산물을 통해 노동의 기쁨을 알고 있으며, 집단적 신념으로 일상 속에서 의의, 감동관계를 풀어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중들의 미의식은 현실적이고 고집되어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 조건에 따라 주체적으로 변형 발전시키는 동태적인 것으로 민중의 힘이 역사 속에서 도도하게 흐르듯이 또한 흐름을 이루는 것이다.

김영희 <놀이대 한두레>
[말씀] 기획 사정상 본지 미의식의 글쓰는 차례가 재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校内 아르바이트생 김경례嬢



대학시절에 예비사회인으로 사회경험을 채득하고 학비조달등의 경제적인 도움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만큼 고려한다면, 실제로 부딪혀 경험해보는 적극적인 내내인도도 많고 그들이 접하는 직종 또한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들과 가장 많이 접하는 교내아르바이트 학생을 찾아보았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경제적 도움의 기회로 시작했지만 많은 학생들을 대하면서 대인관계가 많이 바뀌고, 이용학생들의 변화에—助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일의 보람을 느끼고』고 말하는 김은양은 『이번 아르바이트는 자신의 평소 면학자세를 되돌아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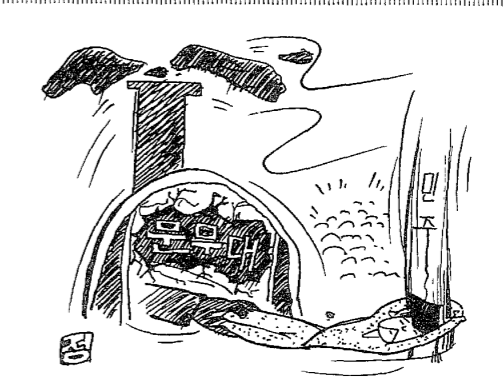
이들의 자세여야한다는 나름대로의 자기견해를 밝힌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시정해 나가야할 문제점에 대해서 문자『학생들이 책을 찾아보려면 과제열람실부터 찾지만 실제 소장장서의 대부분이 도서관 1층에 있는 일반대출

실제 보람되어 있다면서 과제열람실에서만 찾아보는 책이 없다고 짜증을 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용학생들 스스로가 도서관 이용방법을 숙지해서 합리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대출은 도서관류에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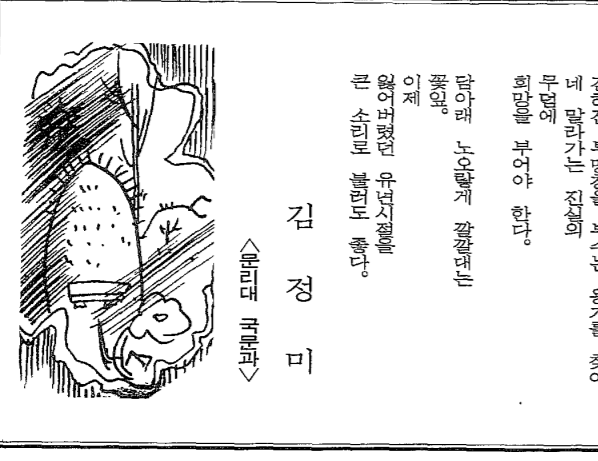
학생들의 면학에 一助를 담당하는데서 나름의 보람을 느낍니다.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덧붙인다.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실태를 보는 김은양은 『학생들이 책을 찾아서 읽는 데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하면 되는 데 여러 일 부 학생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며 학교의 불만을 하나하나가 나의 것이라는 주인의식이 결여된 모습을 볼때는 무척 안타깝다고 하였다. 또 김은양은 학생들이 책을 사들이지 않고 자기만 이용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는 이기주의의 소산이 아니라 『전공적인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면 훼손하지 않고 사용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이어 김은양은 『주최하고 있는 장의 사정을 통해 학생들의 접근이 없으면 소홀히 취급하는 편이 되어서이고 자기중심적인 세태의 존재를 대학사회에서 추방해야할것』이라며 책한권의 배려까지 이제는 자제가 대 학공동체 문화를 함께 하는

東國漫評



◇「올겨울 여자먹기」



합성
합성(合成)이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성질을 나타내는 화합물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화학, 물리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합성
합성(合成)이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성질을 나타내는 화합물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화학, 물리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개주월 복지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태창이 생산하는 경제적 활동복지—

1956년 민족을 생산으로 출발한 태창은 30년이 지난 오늘도 오직 민족발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품목이라도 가장 뛰어난 제품을 만들겠다는 일념하에 다양하게 변화하는 의류생활 문화의 주도적인 선봉장으로서 새로운 개주월 액의 소재를 개발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Gufta는 뛰어난 품질과 아름다운 색상이 일품으로서 흡수성, 통기성, 방풍성이 뛰어나고 값 또한 싸서 개주월 복지의 대명사로 이름 날 있는 경제적인 활동복입니다.

바람로 생산품목 골덴/우단/인디고 데님/칼라데님/삼브레이/크림골덴/크림데님/스트라이프 데님/핑크/나염복지/면마혼방직/크림골덴

Esplan은 고신축성 및 뛰어난 미려한 활동 자세에서도 구김이 가지 않고 본래의 산뜻한 멋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산뜻한 착용감에 기능성, 활동성 또한 높이 발달한 질은이에게 더욱 좋은 복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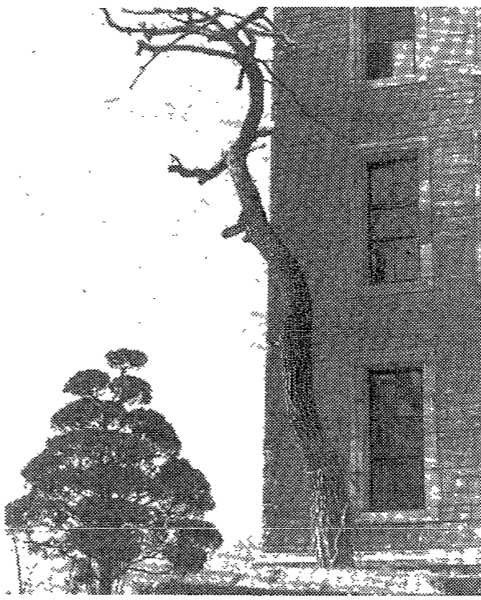
에스판 생산품목 에스판 골덴/에스판 데님/에스판 인디고데님

泰昌企業株式會社
TAECHANG ENTERPRISE CO., LTD.

합성(合成)이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성질을 나타내는 화합물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화학, 물리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校內 調整사업 "제자리 걸음"

여건 무시한 植樹로 枯死초래



△교내 調整사업및 環境미화가 구체적인 계획이없는 상태로 진행되어 "제자리걸음"만 돌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개선계획 시급

학교의 환경미화는 교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의 환경미화 작업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순히 나무를 심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교내의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내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학교의 환경미화는 교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의 환경미화 작업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순히 나무를 심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교내의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내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불교문화연구원 學術會議

날을 2일 「佛敎儀式의 禮法문제」 다뤄

佛敎文化硏究院(佛敎文化硏究院)은 10월 12일(수)과 13일(목)에 서울에서 佛敎儀式의 禮法문제에 대한 學術會議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佛敎儀式의 禮法문제에 대한 學術會議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佛敎儀式의 禮法문제에 대한 學術會議를 개최했다.



만취의 세월

멋으로 넘기던 여유와 흥취가 없어 보인다. 힘겨운 여유와 흥취가 없다. 「불행은 다행보다 인생을 더 단련시킨다」라는 다시 같은 사색들이 어릴수록 없고...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내일이 만취의 세월속에 잠들려 하네. <글> 사.진<진>김정희



본부 塚本교수 기증

본부 塚本교수 기증은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본부 塚本교수 기증은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본부 塚本교수 기증은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본부 塚本교수 기증의 주인공인 塚本교수.

閔丙天 부총장

閔丙天 부총장은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철간부 후보생 졸업식

경철간부 후보생 졸업식은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졸업식은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졸업식은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총학생회 29.30일 예산감사

총학생회 29.30일 예산감사는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예산감사는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예산감사는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산악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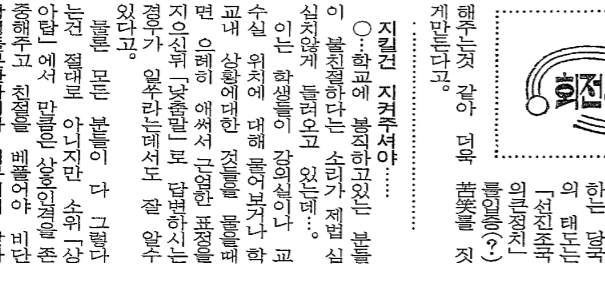
산악의 밤은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산악의 밤은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산악의 밤은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정철수익금

정철수익금은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정철수익금은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정철수익금은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재발수익

재발수익은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재발수익은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재발수익은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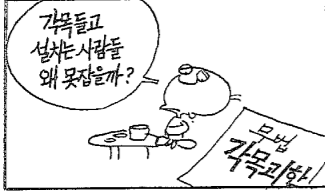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본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사랑의 언어 - '히쉬'

젊은 남의 지성과 젊은 남의 낭만으로 수놓는 사랑이야기! 마음에서 마음으로 - 감미롭게 스며드는 그 이름 - '히쉬'! 사랑한다는 말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한다. 허쉬 초콜렛 - 사랑은 느끼게 한다. 감미로운 사랑의 언어 - '히쉬'! 영원한 사랑의 언어 - '히쉬'!

여로니.

오 황 <34>



부들수 있는 우리들 노래는 뭐예요?

지난해 12월, 모추간지에 「동심종 먹는 저절노래, 어린이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이 기사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구

장에 보냈더니 의사하고 오네 아, 눈깔 빠져 (후략) 이들 노래중에서는 우리때부터 불렀던 꽤 익숙한 노래도 있고, 대학교에서 불리워지는 구절가요



전되는 구절가요 (개사곡을 포함)가 저속한내용에다가 성적인 묘사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었는데, 이 글에서 소개하고있는 구절가요는 이러한 것들이었다.

산할아버지 뉘스키 마쉴레 전 북대에 해답하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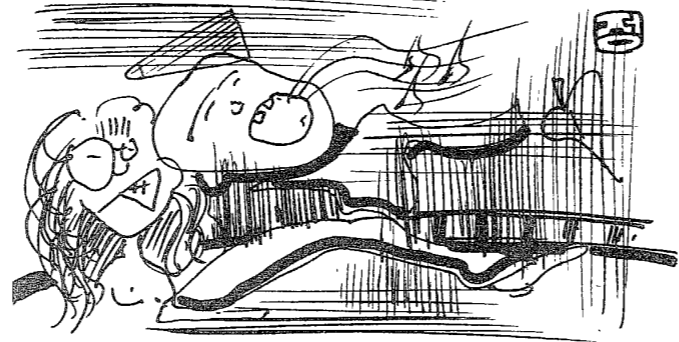
엘블린스에 실려가셨네 공몽도 지에 입하셨네

(「산할아버지」 개사)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코딱지를 한아름 선사합니다 물러받은 책으로 엮을 사먹고 우리는 언니뉘를 따르렵니다

(「졸업식노래」 개사) 개사곡은 아니지만 구절가요로 이런 노래도 예로 들고 있다.

첫째 아들 공부 잘해 학교 선생 보냈더니 아이들만 패네 아, 눈깔 빠져

네째 아들 수명 잘해 수명 이 기사의 논조도 이러한 노



“現 저질童謡는 童童 좀먹은 사회상황의 반영”

와 같은 형태의 노래도 있다. 어쨌든 이러한 노래는 권정현이 할 만한 좋은 노래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러한 소위 「저질」 구절가요가 우리사회의 어떤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특

히 이 기사의 논조도 이러한 노

다. 그러나 이러한 노래에 대한 이차적 책임은 어린이들의 문화, 특히 노래에 관하여만 이야기를 좀해보자면 교과서 풍요를 비롯하여 여러 풍요들에게도 있다.

왜냐하면 구절가요를 제외한 풍요들은 모두 어른들에 의해서만 들어져 어린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의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항하지

못한 사회상황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갖게 해줄 의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적인 풍요는 어린이용 만화영화 주제가나 어린이프로그램 주제가 혹은 어린이를 겨냥한 CM송들인데 이들 풍요들은 교과서 풍요보다 음악적으로는 대중가요의 음악에 가까와서, 대중음악적인 비트를 사용하거나 트로트적인 노래들이 많다. 특히 일본에서 수입한 만화영화의 주제가인 경우는 그 주제가까지 그대로 가져다 번안하여 방송하는 경우도 있다.

기사의 내용은, CM송의 경우는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쉽고 자극적이며, 만화영화 주제가의 경우에는 만화영화의 비현실적인 주인공을 찬양하는 내용이 보편이다. 따라서 만화영화 주제가나 CM송에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삶에서 우리나라는 솔직한 노래를 기대할수만 어렵다.

교과서풍이나 창작풍의 경우

신의 삶을 반영하며 더욱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노래는 거의 없다. 외부로부터 주입된 교훈이나 자연현상은 모두 어린이들의 삶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에는 충분하지 않은 제재이다.

어린이들에게는 「아 속제하기 싫어」라든가 「엄마가 외기집에 가 신날 혼자 지나가 무섭다」 등 가하는 식으로 자신이 일기장에 쓸 수 있는 생활의 이야기, 다양한 생활감정 혹은 인간의 이야기를 노래한 풍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어린이들의 표현욕구를 충족해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노래는 교과서풍에도, 대중문화적인 풍요에도 거의 없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이렇게 억눌린 표현욕구, 현실에서 오는 충격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행적이고 폭발적인 구절가요를 만들어 부르게 되는 것이다.

저질적인 구절가요의 문제는 구절가요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도 그들의 다양한 생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예술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노래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로잡고 우리의 풍요문화 다양화시켜 어린이들의 노래로서 위안 받고, 자기를 표현하고 삶을 반영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이웃을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노래 별론가

<노래 별론가>

文藝新音

제 1 회 민족국악교 개실

오는 29일 민족국악회 주최로 민족국악회에서는 「제 1 회 민족국악교」를 그림마당(인사동소재)에서 갖는다. 서해안 풍어 곳의 총체적 이해를 돕는 이마당에 주관한 (민속학자) 최가연사 나온다. 공연시간은 오후 7시부러.

「총각파티」 공연

오는 29일까지 미리내 예술극장서 극단 미리내에서는 패디 차에 프스키퍼, 김동중연출의 「총각파티」를 오는 29일까지 미리내 예술극장서 공연한다. 공연시간은 하오 4시부러, 7시부러, 하루 2회공연.

「사랑금지」 공연

오는 30일까지 마로니에극장서 극단광장에서는 샘 세퍼3작의 「사랑금지」 공연을 沈載燦출로 오는 30일까지 마로니에극장 무대에 올린다. 공연시간은 평일 하오 4시30분, 7시30분 하루 2회공연.

「신의 딸」 공연

오는 30일까지 광대소극장서 극단 광대에서는 金聖秀3작의 연출의 「신의 딸」 공연을 오는 30일까지 광대소극장무대에 올린다. 공연시간은 하오 4시부러, 7시부러, 하루 2회공연.

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과거를 재생시킬 수 있고 현재를 가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우리로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건설적인 발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흔히들 마찰없는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깊은 사찰이나 조용한 장소에서 사회와 유리된 생활을 하는 사람을 고고라고 칭송하게 되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회현상에서 무관심하다, 피사할 해 극히 무서운 현실이라 할수 있다. 그렇다! 그 음성들은 아직도 살아있다. 나무가지를 때때로 붙는 딱딱한 껍질을 헤치고 아를 타고 신비로운 새들이 울고 꽃들이 피어나듯 우리 동국인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정의와 고귀한 자유가 거대한 새싹이 되어 강인하게 생명을 지켜갈 것이다.

속 등 속

<공과대 전자계산학과>

그렇다! 그 음성들은 아직도 살아있어, 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한 굴종과 안일은 극복 되어야 돼.

투고하

노동의 기계로 전락된 이나라 민중들의 혁신과 치가은 아스팔트 위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과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절망되어있는 그들의 외침을 외시하지 않는 정의의 외침들이 인간애와 민중애에 대한 뜨거운 열의와 뜻을 일깨우는 이 조음에 품을 일으킨다.

진실로 인간다운 사회로의 뜨거운 열망으로 어린 삼십년 세월을 거치면서 그들에 파퓰러한 역사철학의 진리를 밝히고, 정의와 고개를 함께 했던 눈과 입들은 피땀이 되어 이제 새로운 의미와 각오로 진달때를 파인다.

이제 우리는 창조적 지성으로서의 비판의식과, 보다 견고한 의식수준으로 현실과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틀거치적이고 불합리한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개인의 굴종과 안일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시야를 지나야 할 것이다. 역사의 과거를 잊어버린다면 또다시 쓰라린 역사의 진찰을 받게 된다는 심도있는 판단을 현재의 정치현상과 사회과학이 주는 결정적 태도가 지난날의 수많은 패배와 좌절을 덮고 일어서서 지금 우리에게 미쳐서는 역사철학의 본령이 이론적으로 모순되지 않는지에 관한 애국적인 충고 (忠告)를 진심으로 밝힌다.

진실된 생활, 그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기초적인 삶의 가치자책 상실되는 이안타까운 현실은 유식(有識)에 의해 무식(無識)이 멸시 받고 부(富)에 의해 빈(貧)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부조리와 억압을 참출해내고 말이다.

이제 우리는 안주할 수만은 없



<매스어필 공연장면>

친동들이 교회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읊조린다.

이들 젊은 서로 매일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共生的 의미의 對立이다. 따라서 이들의 심화된 갈등에서부터 서로가 성정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가는 과정에까지 이르는 그들의 결속은 하나의 원전을 일대할로 의미하는 것이다.

이 곡은 비록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종교교단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온갖 권위와 힘, 그리고 그것이 야합하려는 주의를 상충하고 있는이때, 우리는 팔리신부와 마르를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일깨워지고 정의와 진실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깨닫게 한다.

<남정명 記者>

교회의 권위와 영웅에 빠진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어

우리는 흔히 살아간에 있어 「세태간의 갈등」에 직면할 때가 많다. 기성세대는 안주하려는 습성에 익숙하고 체제보수적이지만, 젊은세대는 체제변혁의 의지로 이 시대의 모순과 질곡을 해파리고 이를 흔하히 「세태간의 갈등」로 규정한다.

이 곡은 열의, 카톨릭의 신학자 세태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듯이 보인다. 敎會를 신앙의 척도에서보려는 영웅의 척도로 이끌어가는 논란적이고 세속적인 신부 「팀·팔리」와 眞實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교회의 신학생 「마크·폴슨」의 만남이 그것이다.

이 두사람의 만남은 팔리신부의 대학시 강론시간에서부터 비롯되는데 마르들은 교회를 잘못 운영해나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세속적인 권위주의에 흐르는 카톨릭문제들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다. 그는 또 자신이 신부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강단을 통해서 중요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마크의 열정에 팔리신부는 자신의 손수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마르에게 세상을 살아 가는 방법과 조직 속에 살아 남는 방법을 가르쳐주려한다.

그러나 마크는 신자들을 움직일수있는호소력(Mass Appeal)을 신부에게서 구하면서도신부의 그런 전담한 처세가 용납될수는 없다. 마크는 신부에게

우리시대의 선구자적 시인인 김규홍, 고은, 신경림, 윤병만, 조태일, 김지하, 양성우, 김병수, 이시영, 김준래, 하준오, 김정환등, 열우정의 시인들의 고향을 찾은 이기형시인이 국토의 이야기와 방황의정를 잔잔하게 그려낸 감동기행문이다.

<우일기 372면 3천 7백원>

連詩狀況

尹仁永 著

동문시인尹仁永의세번째시집「狀況」은 그가 이제부터 子正될 모더니즘의 主知的 세계에서 脫却하여새벽으로 향하는 새로운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 구상하고 整合하고 노래하는 계기적 의미와 가치를 담은 작품집이다.

<해진서관刊·148면·3천원>

한국의 기층문화

김윤외 著

우리문화에 대한 실천적 인식을 바탕으로 민족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된 「한걸음사상좌」 제 4집으로 발간된 이 책에는 한국인의 자연관과 과학사상, 한국인의 삶과 食문화, 한국부속의 세계와 성격등 우리의 기층문화에 대한 여성들의 글들이 실려있다.

<한걸음사상·192면·2천 4백원>

시인의고향

이기형 著

우리시대의 선구자적 시인인 김규홍, 고은, 신경림, 윤병만, 조태일, 김지하, 양성우, 김병수, 이시영, 김준래, 하준오, 김정환등, 열우정의 시인들의 고향을 찾은 이기형시인이 국토의 이야기와 방황의정를 잔잔하게 그려낸 감동기행문이다.

<우일기 372면 3천 7백원>

그것은 젊음의 Body Language 자유를, 개성을 말한다.

HANG TEN

행텐 제품은 영동직영점 (T776-1020) 특약점 전국유명 백화점에서만 판매합니다.

아메리칸 캐주얼 HANG TEN